

본문 : 요한복음 11 장 17-27 절

제목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

제 어린 시절 농촌 마을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없었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 관을 놓고 위패를 모시고 삼일장을 치릅니다. 흰색의 장례식 옷을 입은 고인의 가족들은 수시로 통곡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하며 울던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삼일째 되는 날 관을 실은 상여가 마을을 벗어나 장지로 향합니다. 앞소리꾼이 구슬픈 노래 가락을 매기면 뒤에서 상여를 메고 따라오는 상여꾼들이 그 가락을 받아서 부릅니다. 이렇게 매기고 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장지에 다닙니다. 어떤 이는 가늘고 길게 잘린 하얀 한지를 길가에 날리며 상여를 따라갑니다. 상여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얀 종이들이 나무 가지나 풀사이에 걸려 있는 것이 기억납니다. 유가족들은 이 때 가장 큰 소리로 목청껏 울며 고인을 애도합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 시골의 장례 풍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장례는 큰 병원이나 장례 회사들이 행하는 사업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그렇게 애도하는 분위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문객들도 고인에 대한 애도 대신에 시답잖은 이야기들만 나누다 갑니다. 죽음이 갖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장례에서는 안식으로서의 죽음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갖는 폭력성은 외면되는 것 같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삶을 갈라 놓고 폭력적인 이별을 강요하기 때문에 죽음은 폭력적인 겁니다. 폭력적인 이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겁니다. 물론 운다고 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애도는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삶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장례 문화 안에서는 많이 무시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문객들은 베다니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 절에 굳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오리 밖에 안 되는 정보를 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온 것을 보니 나사로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을 뿐 아니라 평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놓인 지 벌써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2.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가끔 몸이 죽었는데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것을 말하는데, 임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도 삼 일이 멕시멈이라고 합니다. 삼일이 지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미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동네 입구에 도착하신 겁니다. 유가족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중에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마을 밖 언덕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21-22 절).”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다시 살려달라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에 예수님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마지막날 부활은 믿지만 오빠가 당장 무덤을 박차고 일어단다는 말은, 글썄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주님이 빨리 오시지 뭐하고 이제 오십니까? 하는 섭섭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내 형편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들도 그렇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은 극심한 괴로움이나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만약 주님이 지금 내곁에 계시다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때 주님이 계셨기만 해도...”

3.

예수님은 “네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컨펌하기 위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장도 그동안 몇 차례 설명드렸던 “Ego eimi...” 구문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 또는 “내가 바로 ~이다.”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를 쓰시며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7 번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쓰셨던 말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이자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amplify) 장치가 앰프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이라는 앰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포함한 신약 말씀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메시지와 정신이 예수님의 삶에 녹아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녹아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34 장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라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바로 그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또한 에스겔 37 장의 마른 뼈들을 향한 에스겔의 대언 말씀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 장 11 절에서 13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그 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미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마른 뼈는 이미 멸망해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죄가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이 죄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려 버렸을 때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서가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상대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악을 한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인내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힘보다 이스라엘의 죄의 힘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할 복구시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과 약속들이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으로 구약의 약속이 이뤄지게 될것을 아신 겁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마른 뼈가 되어버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3-4 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요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이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4.

예수님은 저 마지막날에 이뤄질 부활 말고 현재 일어날 부활을 믿으라고 마르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사로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날의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 내 삶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할 때 두 단어가 and 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 괄호하고 생명입니다. 부활, 곧 that is to say (또는 namely) 생명이다. 부활과 생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죽을 병 너머에 있는 죽음까지 고쳐버리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5 장 25-27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만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죽어버린 시체도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 저 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곧 생명이라는 말은, 나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낙심하여 쓰러졌어도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축 쳐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갱생 복구 시켜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꿈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재할 복구 시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동역자로 세우시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이라 생각했죠. 패배감에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갈릴리에 나타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이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이 쓰러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5.

부활을 뜻하는 말 Anastasis 는 ‘다시’라는 뜻의 ana 와 일어나다라는 뜻의 Stasis 가 합쳐진 말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7 전 8 기의 오뚜기같은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먼 훗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만,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현재의 부활 신앙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을 죽음 이후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 속에 찌렁 찌렁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언서를 읽으십시오. 범죄한 이스라엘을 재할 복구 시켜 사용하시겠다는 희망과 약속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동과 전율을 우리 몸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저는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베토벤은 그의 힘있는 음악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연예도 한 번 못해 본 순둥이었다고 합니다. 서른 살에 그는 청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손가락과 턱으로 진동을 느끼며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청력을 다 잃었을 즈음에 작곡한 곡이 교향곡 9번 합창이라고 하죠. 기쁨의 송가로 널리 알려진 'Ode to Joy'가 나오는 교향곡이죠. 그는 이 곡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류애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더블베이스의 육중한 독주로 시작되어 합창으로 이어지는 4악장은 정말 압권입니다. 그가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인류의 하나되는 비전을 제시한 이 곡을 듣는 것은 언제나 큰 즐거움입니다. 그는 가장 절망의 순간에 환희를 노래했고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 참 신앙이었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환희의 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